

# 女월드컵 베테랑의 소망...지소연 '필드골' 장슬기 '무실점'

### 2023 호주 뉴질랜드 FIFA 여자월드컵 20일 개막

### 한국 16강 진출 목표...유진 페어 등 고교생 선수들에 기대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아쉬움만 안고 돌아왔다.

16강에 진출한 직전 2015 캐나다 대회와 달리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승점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쓸쓸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3패라는 성적표를 받은 2019년 프랑스 대회를 경험한 일부 선수는 대표팀에 그대로 남아 2023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을 앞두고 베테랑으로서 중심을 잡고 있다.

월드컵 개막이 어느덧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여자축구의 '간판' 지소연(수원FC)은 지난 대회 아쉬움을 되새기며, 2023 월드컵의 동력으로 삼았다.

지소연이 3일 파주 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먼저 꺼낸 말도 "2019년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는 각오였다. 지소연은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됐다. 일단 우리가 얼마나 멋진 경기를 하는지 봐주시면 좋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2015 캐나다 월드컵 조별리그 코스타리카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 맛을 본 지소연은 이번 대회에서는 '필드골'을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다.

지소연은 "필드골을 하나 넣을 후 커리어를 접어야 하지 않나 싶다. 수많은 골을 넣었지만(월드컵에서) 필드골이 없다"며 "(이번) 월드컵에서 멋진 골을 욕심부려 보겠다"고 웃었다.

더불어 지소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소년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목표도 밝혔다.

"나의 꿈이 될게"라는 에세이를 최근 출간한 지소연은 "이 책의 제목처럼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건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어릴 때는 롤모델이 될 여자 선수가 없었다"며 "장슬기 선수도, 나도 어린 선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책임감을 갖게 된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지소연에게 유소년들의 '롤모델'로 지목된 장슬기(인천 현대제철)도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치더니 어느덧 성인 대표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장슬기에게도 2019 프랑스 대회는 아쉬운 기억

으로 남아 있다.

당시 장슬기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측면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대표팀은 도합 8골을 실점하며 전패했다.

장슬기는 "선수들끼리 2019 월드컵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나는 골보다는 클린시트(무실점) 경기를 펼치는 게 목표다. 나를 포함한 모든 수비수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보다는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다. 어린 연령대에도 좋은 선수가 많아져서 그때와는 경기력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슬기는 특히 2007년생 케이시 유진 페어(PDA)를 포함해 고교생 신인으로 대표팀에 승선한 원주은, 권다운(이상 울산현대)을 지켜볼 선수로 꼽았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페어는 풀린 벨 감독의 부름을 받아 이번 대표팀 소집에 '깜짝 발탁'됐다.

동 연령대보다 우위인 체격을 살린 저돌적 돌파가 강점인 페어는 16세 이하(U-16) 대표팀 소속으로 지난 4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여자 아시안컵에 출전해 1차 예선 2경기 만에 5골을 몰아친 바 있다. /연합뉴스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을 앞둔 여자 축구 대표팀 지소연(오른쪽), 장슬기가 3일 오전 경기도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며 포스를 추하고 있다. /연합뉴스

## U-17 아시안컵 축구 준우승 ... 변성환 감독 "일본에 설욕하고 싶다"

### 결승전 0-3 패배

한국 17세 이하(U-17) 남자 축구 대표팀 변성환 감독이 일본을 상대로 설욕전을 펼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일 태국 뻬툼타니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결승에서 일본에 0-3으로 졌다.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친 변성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끝까지 경기장에서 싸우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감독으로서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나라는 전반에 한 명이 퇴장당해 10명으로 싸웠고, 이후 3골을 내줬다.



변성환 감독

그러나 퇴장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 판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평가 속에 '억울한 패배'라는 주장도 나온다.

변 감독은 "꼭 다시 한번 설욕전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늘 경기 운영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판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우리 U-17 대표팀은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16세 이하(U-16) 4개국 친선 대회에서도 일본에 0-3으로 졌다. 변 감독은 한 명 퇴장 이후 상황에 대

해 "3-4-2 포메이션으로 운영하려다가, 경기 흐름을 보니 원래대로 4-4-1 형태를 유지해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공간을 차단하고,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면 후반 20분 이후 기회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결과적으로 기회도 만들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운영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이날 일본에 졌지만 이번 대회 4위 안에 들어 올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한국은 직전 U-17 월드컵인 2019년 브라질 대회에서는 8강까지 오른 바 있다. /연합뉴스

## 광주FC, 무더위 속 울산 현대와 혈전 ... 0-1 아쉬운 패배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며 웃음을 보인 광주FC 이정호 감독과 "열기가 대단했다. 어려운 경기였다"고 고개를 저은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 광주가 '대어' 울산 사냥

에는 실패했지만 뜨거운 박수 속에 무더위 속 혈전을 마무리했다.

광주가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0라운드 홈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앞선 FA컵 8강 경기에서 정에 멤버를 내세운 전북현대에 0-4로 패했지만 최근 리그 6경기에서 4승 2무의 상승세를 기록했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1위 울산에 상대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54%의 점유율로 46%의 울산에 앞섰고, 나란히 6개의 슈팅도 기록했다. 하지만 울산 수문장 조현우의 선방에 막힌 광주는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며 '대어 사냥'에 실패했다.

초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면서 파울과 카드가 쏟아진 경기.

전반 37분 광주가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호수비에 올랐다. 공을 뺏은 광주가 정지훈의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울산을 공략했지만 조현우에 막혔다. 공방전 끝에 0-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엄지성을 투입해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 9분 두현석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정호연이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13분 골키퍼 이준이 울산 주민규의 티닝 슈팅을 저지했지만 이어진 코너킥 상황은 막지 못했다. 이명재가 키커로 나서 왼쪽에서 공을 올렸고, 박용우가 뛰어올라 헤더로 광주 골대를 갈랐다.

후반 17분에는 김한길을 대신해 아사시가 투입돼 그라운드를 달렸다.

투입 2분만에 아사시가 오른쪽에서 패린 원발 슈



광주FC의 정호연(왼쪽)이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와의 경기에서 김민혁과 공을 다투고 있다. <광주FC 제공>

팅이 문전에 있던 이희균을 지나 골키퍼 조현우 앞으로 향했다. 이번에도 조현우가 몸을 날려 광주의 득점을 저지했다.

후반 25분 다시 한번 아사시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아사시가 페널티지역으로 진입하던 순간 이정용의 태클에 발을 밟혀 쓰러졌다.

페널티킥을 기대했던 순간, 라인 바로 앞에서 반칙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아닌 프리킥이 선언됐

다. 아사시가 키커로 나서 환상적인 프리킥을 선보였지만 또 다시 조현우의 호수비가 나오면서 광주가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45분 문전에서 나온 이희균의 회심의 슈팅도 조현우의 선방에 막히면서 광주는 아쉽게 무패 행진을 마감했다.

'적장' 홍명보 감독도 인정한 광주의 투혼이었다.

울산 홍명보 감독은 경기 끝난 후 "어려운 경기였다. 지난 (FA컵) 패배 벗어나야 하는 경기였지만 광주는 상승세였고, 원정경기였다. 열기가 대단했다. 홈팀 응원까지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준비한 대로 통제한 경기였다"며 "상대 빌드업 통제를 잘했고, 볼이 사이드로 침투했을 때 하프 스페이스 이용 하는 부분에서도 수비수들이 잘 커버했다"고 밝혔다.

이정호 감독도 패배의 아쉬움보다는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정호 감독은 "더운 날씨에 선수들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감독으로서 칭찬해주고 싶다. 팬 분들이 광주 축구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 구단주인 강기정 시장님도 끝까지 경기 보고 가시는 데 그것도 많은 힘이 되는 것 같다"며 "나도 아쉽지만 선수들이 오늘 울산을 이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경직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나보다 선수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지금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줘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승패가 걸린 부분은) 골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골이다. 그래도 괜찮다. 선수들이 다음 경기 기대가 되게끔 많이 보여줬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자주 심어줘서 경기 준비하는 데 의욕이 생긴다"며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거짓말 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없는 힘까지 쥐어짜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우리 선수들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리키 파울러(오른쪽)가 3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캐디와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리키 파울러, 4년 만에 PGA 투어 우승

### 로켓 모기지 클래식 24언더파

리키 파울러(미국)가 4년 5개월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파울러는 3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골프클럽(파72·7370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로켓 모기지 클래식(총상금 88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뽑아내며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기록한 파울러는 애덤 헤드윈(캐나다), 폴린 모리카와(미국)와 함께 연장에 돌입했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선두였던 파울러는 이날만 8타를 줄인 모리카와와 5언더파를 친 헤드윈에게 동타를 허용했다.

18번 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홀에서 파

울러는 약 3.5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넣고 우승 상금 158만4000달러(약 20억8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파울러는 2019년 2월 피닉스오픈 이후 4년 5개월 만에 투어 6승을 달성했다.

지난달 메이저 대회 US오픈에서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다가 결국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친 아쉬움도 털어냈다.

파울러는 2016년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랐지만 2019년 이후 우승 소식이 끊기면서 지난해 세계 랭킹 100위 밖으로 밀려나는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나 이 대회에 앞서 열린 최근 4개 대회에서 세 차례 '톱10' 성적을 내는 좋은 흐름을 유지한 끝에 4년 만에 가까운 '우승 감동'을 해소했다.

임성재는 14언더파 274타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